

 문화체육관광부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7. 29.(목) 낮 1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1쪽(붙임 없음)	
배포일시	2021. 7. 29.(목)	담당부서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		
담당과장	임성환(044-203-2861)	담당자	사무관 김영미(044-203-2863)		

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유원시설 방역 현장점검 - 문체부 2차관, '캐리비안 베이' 방역상황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-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김정배 제2차관은 7월 29일(목), 수도권 지역의 물놀이 유원시설 '캐리비안 베이'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.

특히 현재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수용인원의 30% 입장 인원 제한,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유원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.

또한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00% 지원과 유원시설 소비 할인권 재개 등 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했다.

김 차관은 “휴가철을 맞이해 물놀이 유원시설에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. 철저한 방역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자도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 아울러 “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 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미(☎ 044-203-2863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